



바티칸 부활절 미사...“세계에 평화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5일(현지시간) 정오 가톨릭 신자와 순례자 등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부활절 미사에서 부활절 강복 메시지 ‘우르비 에트 오르비’(“바티칸과 온 세상”)라는 뜻의 라틴어)를 전하고 있다. 교황은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예멘,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리석은 폭력사태를 끝내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日 새 중학교과서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검정 통과 4종→13종으로 대폭 늘어...내년부터 교육 식민지배·침략 미화도...한국내 비난 여론 급속 확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 총 18종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전인 2011년 검정을 통과한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지만 이번 검정을 거쳐 13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명기한 지리 교과서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 교과서가 3종에서 5종으로 각각 증가했고, 역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인 4종에 들어갔

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현행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중 모두 9종(역사 1·공민 5·지리 3)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검정을 통해 15종(역사 5종·공민 6종·지리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에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사실이 8종 모두에 실렸다. 또 에도(江戸) 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사회과의 3개 세부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이미 작년 4월 검정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전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은 작년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학습지요령 해설서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중·고교 학습지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다. 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1923년 간토(關東) 대지진때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검정을 거쳐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수정됐다. 또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한 출판사가 쓴 ‘근대화를 명목으로’했다는 표현은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문부과학성은 ‘명목’이라고 하면 달리 노리는 바가 있는 것처럼 읽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난징(南京)대학살(1937~1938년)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은 검정을 거쳐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로 변경됐다. “일본군의 만행으로 비난 받았다”는 표현을 검정 신청본에 넣었다가 삭제당한 교과서도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반면,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는 전무한 군위안부 관련 내용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마나비사’ 교과서에 들어갔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의 요지와, 처음으로 자신이 군위안부였다고 밝힌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소개됐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민간 출판사들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일본의 검정결과 발표에 대해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침략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잘못된 과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과오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즉각적인 사정을 요구했다. 여야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자성 촉구와 함께 우리 정부의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도 촉구했다. 이밖에 광복회와 시민·학계도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대선은 부시vs클린턴 ‘왕좌의 게임’

힐러리·웬 양자구도 권력 세습화 우려

미국 건국 200여년사에서 보지 못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웬 부시(1989년~1993),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1993~2001), ‘아들 부시’로 불리는 조지 워커 부시(2001~2009)를 백악관 주인으로 배출했다. 두 가문은 지금까지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1989년~1993),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1993~2001), ‘아들 부시’로 불리는 조지 워커 부시(2001~2009)를 백악관 주인으로 배출했다. 신문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차례의 임기를 마친 후엔 3선 출마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공화정을 확립한 역사를 상기시키고, 부시-클린턴 가문의 경쟁이 아들 손자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미국의 대통령 역사에서 제2대 대

통령인 존 애덤스의 후손 존 퀸시가 6대 대통령이 됐지만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 다른 건국 세대 대통령들의 후손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고,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6촌간이긴 해도 생전에 몇 차례 만난 정도는 아니었다. 신문은 “미국은 그동안 때때로 변변치 않은 집안 출신의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세계의 경탄을 사왔다”며 전설 그대로 통나무집에서 자란 미국 최고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등을 예로 들었다. 빌 클린턴도 그러했다. 그러나 “불평등이 심화하는 시대인 오늘날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의 후손인 경향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성공한 부모 덕분에 온갖 교육 기회를 누리게 됨으로써, 미국 사회가 ‘세습적 능력주의’ 성격을 띠게 됐다는 것. 이런 미국 사회가 나태한 귀족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게 사실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병리 현상이 있으니, 능력만으로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을 잃을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그리하여 2016년 대선이 실제로 클린턴-부시 대결이 된다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과거사 대치’ 韓·日 안보협력 움직임

미국 중재로 이달 회담 추진 북핵 대응 등 국방·외교 분야

‘과거사’를 둘러싼 대치 국면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3자 형태로 안보 협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울 상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잇따라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행정부가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3국 차관보급관료들이 16일부터 이틀간 ‘3자 안보회의(DTT)’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협의를 갖는다. 연례적인 회동이기도 하지만, 한·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기도 나온다. 토의에서는 3국간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 미·일 방위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분야의 회담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3국 차관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근 이란 핵협상 대결 이후 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당국자들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양국 안보정책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관심 물건

전대정문 2분! (신축 4층건물)

룸12개, 울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7억8천
-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2채 무화과 식재있음(토지310평) 매매가3억

062)527-7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올수리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①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⑤ 수원지구 모야로771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⑥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③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강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억 월 32만 매매가 8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50만

010-6670-9800

수완지구 사무실 임대 매매

수완지구 3층 롯데마트 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 영신중, 고교 앞 영강초교 앞
-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 대지 210평 (1층 6칸)
- 건물(2층2칸), 학원지함

※ 2층주택하면서 상가수익가능

매매가 3억

010-6670-9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북구 중흥동 1층상가 (32㎡) 감평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평가 6억6천, 최저가 3억6천
- 남구 봉선동 (사우나지하) (590㎡) 감평가 9억4천, 최저가 2억1천5백
- 남구 노매동 (2층코너) (279㎡)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3억4천
- 남구 봉선동 (1층) (61㎡) 감평가 3억8천, 최저가 2억6천

수익성 상가 (근린 주택)

- 북구 두암동 (3층상가겸 주택) (토 198㎡, 건물 512㎡)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3억9천
- 광신구 소촌동 (토 400㎡, 건물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 서구 쌍촌동 (토 221㎡, 건물 458㎡) 감평가 4억7천, 최저가 3억7천
- 남구 월산동 (토 204㎡, 건물 376㎡) 감평가 3억, 최저가 2억 1천
- 동구 계림동 (토 195㎡, 건물 463㎡) 감평가 4억9천, 최저가 2억9천
- 북구 중흥동 (토 133㎡, 건물 252㎡) 감평가 1억7천, 최저가 1억7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북구 일곡동 (1층 패자점) (토 9600㎡, 건물 822㎡) 감평가 41억, 최저가 28억
- 북구 매곡동 (1층 조립식건물) (토 1650㎡, 건물 1317㎡) 감평가 15억9천, 최저가 11억
- 동구 충장로 (4층 통건물) (토 155㎡, 건물 628㎡) 감평가 9억6천, 최저가 3억9천
- 장성 삼계면 (2층건물) (토 1088㎡, 건물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9천1백
- 담양군 금성면 (3층편선건물) (토 30038㎡, 건물 2916㎡) 감평가 27억, 최저가 9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상가건물, 예식장) (토 8474㎡, 건물 11735㎡) 감평가 152억, 최저가 88억
- 목포시 상리동 (3층상가) (토 221㎡, 건물 508㎡) 감평가 3억8천, 최저가 1억3천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 직원구함 (남, 여)
★ 경매 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운암동, 법원)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경매 기본교육 + 실전주주 교육

- 오전반 11시~12시 30분
- 오후반 2시 ~ 6시 사이
- 저녁반 7시 ~ 9시
- 엔피엘 교육, 물건 입찰해드립니다.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개찰·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경매 물건 추천

- 서구 쌍촌동 (상무4지구) 근린주택 4층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7천
- 담양군 금성면 (핀선) 토지 9000평 감평가 27억 → 최저가 9억9천
- 북구 두암동 근린 주택 3층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9천

062-527-7600
010-7384-7800